

코스피 앞으로 더 갈까?

Summary

코스피 앞으로 더 갈까? 국내 주요 증권사는 2026년 코스피 전망을 7,500pt로 제시했다. 이미 4,000pt를 넘고 미국 증시 하락과 AI 버블 논란에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코스피의 상승 여력은 건재하다. 2025년 약 70%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가들과 PER, PBR을 비교해보면 여전히 가장 낮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높지 않다. 모든 강세장에도 부침은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코스피 앞으로 더 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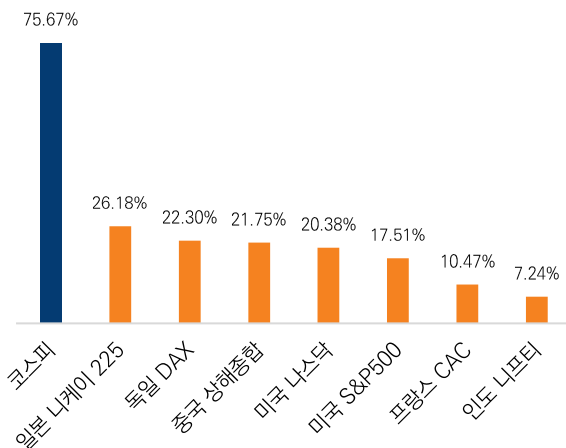
국내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앞으로 코스피가 추가 상승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년 약 70% 상승한 코스피는 2026년에도 좋을까?

일단 글로벌 주요 국가와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2025년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줬다. 물론 급등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 완벽하게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주식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 미국 증시 버블에 대한 우려,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 등 다양한 이슈들이 여전히 주가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럼에도 2026년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1)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코스피 2)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기업들의 약진 3) 자발적 가계 포트폴리오의 전환 (부동산→동산) 이다.

PBR과 PER을 보면 2025년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은 덜하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증가 국면에 있고 경기 확장 국면이다. 모든 강세장에도 부침은 있다. 하지만 코스피를 끌어올렸던 요인들은 건재하다.

< 2025년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인 국내 증시 >



출처 : Bloomberg (2025.01.01~2025.12.31)

< 주요국 PER, PBR 비교 >

	P/E	P/B
코스피	16.94	1.35
프랑스 CAC	17.27	중국 상해종합 1.81
중국 상해종합	17.48	독일 DAX 2.07
독일 DAX	17.64	프랑스 CAC 2.16
인도 니프티	21.59	일본 니케이 225 2.48
일본 니케이 225	22.6	인도 니프티 3.55
미국 S&P500	25.42	미국 S&P500 5.47
미국 나스닥	32.37	미국 나스닥 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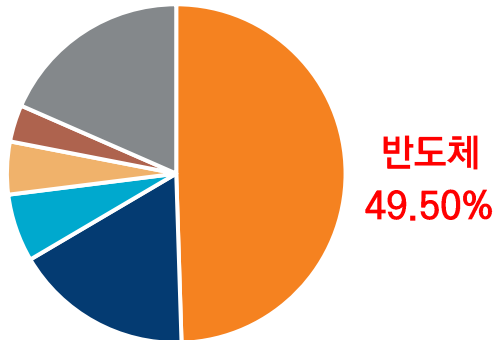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12개월 선행 기준
기준일: 2025.12.31

코스피 앞으로 더 간다고?

코스피를 이끌 반도체 기업들

코스피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섹터는 전기&전자 즉, 반도체를 포함한 섹터다.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성장해야 코스피도 같이 상승하기 편하다는 의미다. 레거시 반도체 기업들의 전성시대가 시작되었다. 젠슨 황이 직접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수장들을 만난 것만 보더라도 유추를 해볼 수 있다.

〈 코스피 200 섹터별 비중 〉



■ 반도체 ■ 산업재 ■ 금융 ■ 자유소비재 ■ 통신서비스 ■ 그외

출처 : Bloomberg
기준일: 2025.12.31

〈 젠슨 황이 한국까지와서 치킨을 먹은 이유를 생각해 보자 〉



출처 : 뉴스1
기준일: 2025.11.04

지난 9월 21일 모건 스탠리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간 한 이후 한달 정도가 지나 다시 한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업사이드가 있는지 점검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2008년, 2012년, 2018년 반도체 슈퍼 사이클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아직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피크 아웃’을 이야기 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분석이다. 물론 국내 반도체 주가가 너무 빠르고 크게 움직이면서 중간 조정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통상실적이 피크를 찍기 4개월~8개월 전에 주가는 피크를 찍고 내려왔는데,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실적의 피크는 2027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기업들이 코스피를 든든하게 받쳐줄 것으로 기대된다.

〈 모건 스탠리, 과거 반도체 슈퍼 사이클 때와 비교해보면 아직 피크는 아니다 〉

Morgan Stanley | RESEARCH

October 23, 2025 02:23 PM G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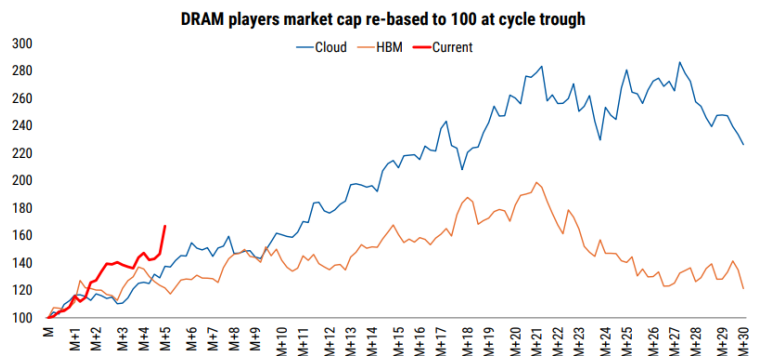
Asia Technology | Asia Pacific

Memory – 2026 vs. Super Cycles

Rising hyperscaler capex, AI inference, and valuations have increased focus on the current memory cycle upturn's durability. Despite elevated AI capex and valuations, history shows that memory remains at some distance from its peak. We draw parallels with past super cycles and raise price targets.

출처 : Morgan Stanley (2025.10.23)

〈 클라우드, HBM 때를 생각해 보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 〉



출처 : Morgan Stanley (2025.0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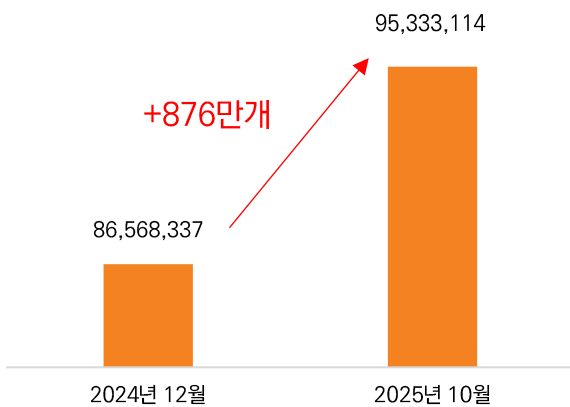
코스피 앞으로 더 간다고?

이젠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산다고?

정책적인 요인과 코스피 지수의 회복에 힘입어 개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순자산은 49%~79%가량이 부동산이다.(2024.12월 기준) 대부분 자산의 축적을 부동산으로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러한 쏠림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나서면서 국내 기업들의 주주환원 확대를 지원하고, 한미 협상 타결,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이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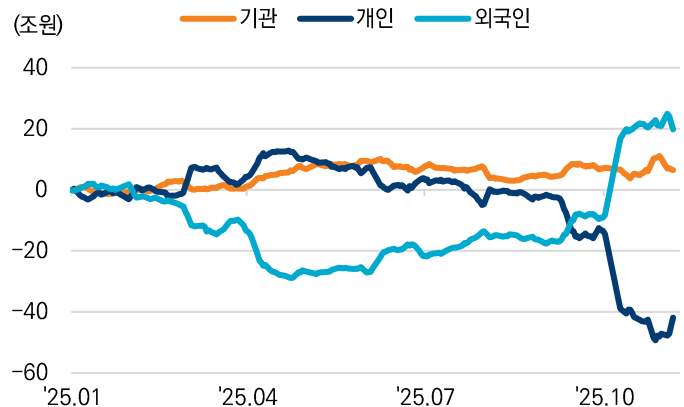
올해 주체별 코스피 매수 추이를 보면 외국인이 크게 늘어났고 개인은 최근에 매수세가 반등했다. 2000년부터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40조원~+40조원으로 코스피에 투자를 하는데, 외국인 매수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금 가장 주목되는 포인트는 개인들의 매수세다. 국내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가 최근 급증했는데, 2024년 말 대비 약 876만개의 계좌가 늘어났다. 한국 인구가 약 5천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 1명당 주식거래 계좌를 대략 2개 정도 보유한 셈이다. 그러면 개인투자자들의 수급이 코스피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 국내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 급증 >



출처 :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 (2025.11.04)

< 개인투자자들의 매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



출처 : Dataguide (2025.11.06)

그러면 수혜가 기대되는 상품은 TIGER 200 이다. 코스피 5,000pt 시대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실투자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는 TIGER 200 ETF에 관심을 가져보자.

TIGER 200 ETF 102110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실투자비용*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코스피 200 ETF

*합성총보수: 0.07% (집합투자업자보수 0.029%, AP/LP보수 0.001%, 신탁보수 0.01%, 사무보수 0.01%, 기타비용 0.02%)
*출처: 코스콤 ETF CHECK

코스피 앞으로 더 간다고?

상품개요

구분	TIGER 200 ETF
종목코드	A102110
최초상장일	2008년 04월 03일
기초지수	코스피 200
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합성 총보수	연 0.07% (집합투자업자: 0.029%, 지정참가: 0.001%, 신탁 : 0.01%, 일반사무:0.01%, 기타: 0.02%)
과세내용	매매차익 비과세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과세 : Min(현금분배금, 과표증분) X 15.4%

* 직전 회계연도 증권거래비용: 0.015%

코스피 앞으로 더 간다고?

리스크 관리 및 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식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종목 위험	주식, 채권 등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정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추적오차 (Tracking Error) 위험	ETF는 추적대상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및 추적 대상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 시 시장 충격, 상/하한가, 거래정지 등에 따른 미체결 등 현실적 제한 등으로 인하여 추적대상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제대로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ETF의 수익률과 원화환산 추적대상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는,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투자위험은 전체 목록 중 일부를 나열한 것으로, 상품 고유위험 등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앞으로 더 간다고?

Compliance Notice

-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ETF 거래수수료,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TIGER ETF에 투자하기 전, 투자자 또는 잠재적인 투자자는 그러한 투자가 자신의 특정한 투자 요구나 목적 및 재무상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투자자문가와 상담하거나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펀드 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 투자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제작하였으며,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 기간 종료 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 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내용이나 향후 시장 상황 변경으로 전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문 중 특정 종목들은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투자 추천과는 무관합니다.